



농촌환경을 고려한 발기반정비사업

김 기 성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조교수)

1. 서 언

농촌은 지금까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주체로, 또한 국민의 중요한 거주공간으로서 물 및 토지의 이용기술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 등 국제협조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국내적으로는 식량수급 변화 등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양질의 식량생산에 확실히 하면서 경제성도 고려한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종합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 측면 만이 아니고 환경보전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다면적·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결국, 농촌공간을 국민의 공유자원으로 인식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파악하고 장래의 농업·농촌상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대의 농촌은, 1) 식량생산의 기반 또는 대상으로서 농촌공간의 성격, 2) 국토경영 전체를 지탱해주는 국민적 자원으로서 농촌공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두가지 성격이 균형을 갖춘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으로 발전되어 가야 한다.

이에 따라서 발기반정비도 식량생산기반은 물론이고 농촌환경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시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밭은 고지대의 산이 평탄지대의 논과 경계를 이루는 환경사 부분

에 대부분 위치함으로 산과 들의 중간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2. 농촌공간

가. 농촌공간의 개념

토지개량사업도 식량증산의 시대로부터 농업기반정비를 거쳐 농지종합정비를 주체로 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농지는 농업생산 장소로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즉, 도시공간의 협소화로 인한 도시생활자들의 농촌공간 유입,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서의 이용, 또한 농촌생활자의 도시지향 등에 따라 농촌환경, 농촌공간의 질적 향상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고도 경제성장이 일단락 됨에 따라 정주권 구상이 부상하여, 생산 제일주의로부터 인간의 행복, 환경의 쾌적함 등 생활목적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 관점도 변화해 가고 있다. 농지정비사업이 생산성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행해지는 이상, 공간의 질, 경관등에 대한 배려가 2차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농지를 주체로 한 농촌경관이 전개되고 있어, 고유의 농촌경관을 고향으로서 보전하고, 전답을 농지정비사업을 통하여 규칙적이고 생산성 높게 개량하는 데도 농공학 관련사업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나. 농촌공간의 특성

농촌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은, 1) 생물생산에 대한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2) 농촌주민을 위한 복지와 문화, 3)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활동, 4) 자연환경의 보전과 아름다운 경관 등을 향상시켜 훌륭한 농촌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촌공간을 훌륭하게 만드는 대상지역은 자연의 생태적 변화와 문화의 시대적 진전에 의한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 생겨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전부터 훌륭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도 다시 사업대상이 되어 농지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균형이 생겨야 한다. 특히, 발지대는 논지역에 배해 배수가 잘 되고 배후의 산지와도 가까워 농촌거주지역으로 적합하거나 거주지역과 근접해 있으므로 논지역 보다도 종합적인 공간개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농촌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농지정비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침 아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1) 해당 지역에서 장래 예측되는 영농형태에 적합하고 토지 및 노동생산성이 높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영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 농촌의 환경조건(생산환경 및 생활환경)정비의 일환으로써 양호한 농촌환경의 형성·보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농지정비는 경지구획의 정비와 함께 용배수 및 토층의 개량, 도로의 정비 및 경지의 집단화 등을 일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지를 장래의 영농형태에 알맞게 만들어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행과 합리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어서 생산성 높은 조건으로 정비하는 데 있으며, 이 사업에 의해 농경지는 권리관계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개량·정비하게 된다.

3. 농촌경관

가. 농촌경관의 구성

농촌경관에는 많은 시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농촌경관을 시각적 측면에서 계획·창조해 가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조화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즉, 농촌공간은 자연과 도시공간과의 상호전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더우기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환경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물은 그 공간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농촌공간과 균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균형의 관계에 따라 우리들은 개방적인가, 아름다운가, 쾌적한가 등 주로 심리적인 연상을 하게 된다. 결국, 농촌경관의 개념은 이러한 각각의 물적존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농촌공간은 이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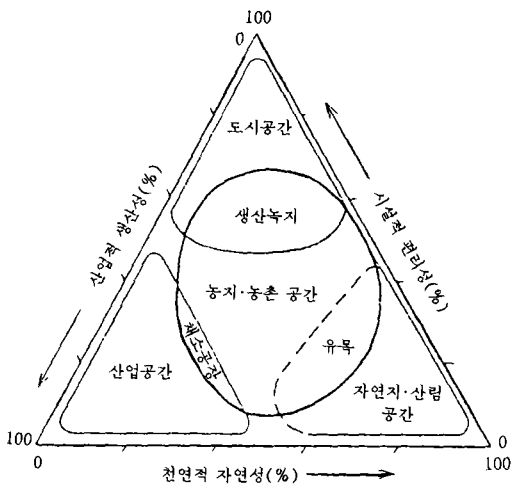


그림. 1. 농촌공간의 위치

다. 농지정비사업

발기반정비를 포함한 농지정비는 지역개발의 일환으로서 농업생산 및 농촌환경의 주된 구성요소를 이루는 포장조건을 종합적으로 정

논과 밭 등의 표상에 의하여 연상화된다.

농촌공간 내부에는 도시공간에 없는 여러가지 사물과 상황이 있으며, 특히 장기적 변동(계절과 기후의 변화)과 더불어 그 시각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위의 자연 및 구조물의 형상적 변화와 더불어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농촌공간은 여러가지의 변동 및 이동요소를 갖고 있고, 이러한 것이 큰 시간축에 따라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내의 변동을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의 존재야말로 농촌공간 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나. 농지경관

공간구성상 삼림, 호수 등 생태학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자연공간, 그리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 등은 보호 및 보전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촌공간은 평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도시공간과 자연공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식량생산의 장으로서만 평가되고 있을 뿐, 그밖에 특징적 요소는 별로 갖고 있지 않아 생산효율 이외에는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에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녹지의 효과는 경관보전과 대기청정화, 심리적 효과 등을 들 수가 있지만, 농지는 역사성을 가진 작물이 생육하는 반자연적 경관임과 동시에 농민들의 노력이 가해진 반인공적 경관이기도 하다. 최근과 같이 농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시 대규모 기계를 투입하여 시공되어질 때 생태학적으로나 경관상으로는 그 질적인 변화가 급격히 파생된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성격을 모르고 생산효율만을 추구할 경우 경관에 대한 배려를 잃게 되고 농지를 주체로 하는 농촌공간의 아름

다음만 상실될 뿐이다. 결국, 농촌공간은 개발과 보전이 서로 조화있게 발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간이다. 이제 농촌공간, 농지 등에서는 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농지의 창조자, 변화자인 농촌정비 관련사업자들의 종합적인 판단력, 감상 등의 역할이 크다 하겠다.

4. 금후의 발기반정비사업 방향

발정비를 포함한 농지정비사업은 시대 요구에 맞추어 설정된 목표(토지생산성의 향상, 노동생산성의 향상, 우량농지 확보, 국토보전, 생활환경개선 등)하에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목표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농업·농촌, 국내·국제 정세의 변화는 기존 목표를 토대로 새로운 목표설정에서 따른 새로운 사업전제가 필요하게 된다.

1) 활력있는 농업기반의 조성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구획 농지정비사업의 진행으로 토지이용형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농형태 변화에 따라 전업농과 겸업농으로 점차 구분이 명확해 짐에 따라 획일적인 사업 시행에서 탈피하여 소구획을 포함한 다양한 구획형태를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 물, 토지라고 하는 3가지 측면에서 본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며, 포장정비에 따른 수익자의 균형, 용배수 유지관리의 적정화 등에 대한 조건정비도 필요하게 된다.

2) 물환경 등 지역자원의 종합적 관리

농업수리사업은 크게 유역을 관리하는 수리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규모와 관리기술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리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 경우, 수량과 함께 수질 관리도 병행하여 유역의 물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차원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3) 농촌지역의 거주공간으로서 기반정비

생활을 포함하여 각종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율적·문화적이고 건전하게 영위하기 위한 기반의 정비는 도시주민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마을의 도로·수로 정비, 마을 배수사업 등 농촌정비사업은 点的·線的 사업으로 농공학 관련사업이 가지고 있는 面的 종합조정 능력을 거주공간 정비까지 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토지이용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대규모 포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맞추어 거주공간도 포함한 토지이용질서 형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4) 농촌지역에서 국토, 자연생태계의 보전

오늘날, 근대산업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도시활동의 확대에 따른 지역생태계에의 영향, 근대화된 농법도 자연의 자기유지 기능을 파괴시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21세기는 인류와 생물의 존속을 위해 자연생태계에의 영향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될 것이다.

농지정비사업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커다란 생산력,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지역의 생태계와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전부터 지역생태계의 개선과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 농지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정비 관련사업이 국토의 생태적 환경을 크게 좌우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는 지역생태계의 개선·창출을 최대한 배

려하는 사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5) 역사성·문화성·예술성의 중시

지역의 물과 토지는 오랜 역사를 거쳐 다양한 인간의 행동이 작용하여 지역의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은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 앞으로는 경제효과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우선하는 시대가 된다. 기술의 발전은 기능을 중시하면서 안정성·안전성을 달성한 후 점차 예술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는 농지정비사업도 예외가 아니며,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지역문화·지역예술면에 대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황은 외 7인, 농지공학, 향문사
2. 梅田安治 外 1人, 農地·農村の景觀, 農業土木新聞社, 1990
3. 梅田安治, 農村地域の景觀とその保全, 農業土木學會誌 43(1), pp.43~47, 1982
4. 田園計劃インステテュート, 1991
5. 日本農業土木學會, 農村計劃學, 1992
6. 日本農業土木學會, 豊かで美しい國土·農村空間の創出, 1989
7. 農村開發企劃委員會, 農村景觀計劃(I), 1981